


# 보 도 자 료

	◆ 2024. 11. 13. (수) 배포	
	◆ 총 3쪽 (본문 2쪽, 붙임 1쪽)	
	<b>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</b>	
	양은진 해양대기연구본부 책임연구원 ☎ 032-760-5334	
강민구 홍보실장 ☎ 032-770-8631		
김창석 홍보실 선임행정원 ☎ 032-770-8637		

## 극지연구소 양은진 박사, 태평양 북극 그룹 의장 선출

- 극지연구소는 지난달 30일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태평양 북극 그룹 연례 회의에서 연구소 소속 양은진 박사가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.
- 태평양 북극 그룹 PAG(Pacific Arctic Group)는 태평양 북극 결빙해역 내 연구 협력을 위해 2004년 설립된 국제 연구 컨소시엄으로, 한국을 비롯해 중국, 일본, 미국, 캐나다 등 쇄빙연구선을 보유한 5개국이 주도하고 있다.
- 태평양 북극 결빙해역은 20세기까지 얼음으로 덮여 있어서 대서양 측보다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진행됐으나, PAG 출범 이후 20년간 참여국들이 장비와 인력, 정보를 공유하면서 관련 연구를 크게 발전시켰다.
-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로 태평양 북극 결빙해역을 탐사하며 국제협력 연구에 앞장섰다. 2013년에는 북극이사회에서 정식 옵서버 자격을 취득하며 국제 위상도 높였다.
- 양은진 PAG 신임 의장은 인류가 맞이할 북극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(CAOFA) 관련 연구, 동시베리아해 미답 결빙해역 연구(S-DBO), 해양기후변화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- CAOFA는 북극해 공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막고,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미국과 중국, 우리나라 등 10개국이 참여한 협정이다. 동시베리아해는 북극해에서도 환경 변화가 가장 빠르게 발생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해역으로 꼽히는데, 우리나라는 10여 년간 아라온호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지역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.
  
- 양은진 선임 의장의 임기는 이달부터 26년 10월까지 2년이다. 양 의장은 북극해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과학기술외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6년에는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수상했다.
  
- 양은진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“PAG 의장으로 전 세계 과학자들이 활발하게 태평양 북극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힐 것”이며, “대한민국의 북극 연구 전문성이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계 보전,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해 인류 공통 이슈 해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겠다”며 취임 소감을 전했다.

#### **붙임 1. 양은진 PAG 선임 의장**

